

일반 실리콘웨이퍼 日 수출규제 불포함?

한시름 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한숨커진 삼성

日 업체, 규제품목 범위적 분석

실리콘웨이퍼, 대상에 포함 안돼
'헤테로웨이퍼' 규제대상에 포함
삼성전자, '고성능 반도체' 비상

일반 실리콘 웨이퍼는 일본 수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왔다. 그 대신, 특수 웨이퍼가 수출 규제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삼성전자가 육성하는 고성능 반도체 부문 피해가 우려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한 업체는 최근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을 범위적으로 분석한 결과, 실리콘 웨이퍼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근거는 규제 대상 리스트다.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품목은 선진국 회원들이 모여 따로 정하게 되는데, 실리콘 웨이퍼는 전체가 아닌 '헤테로 에피택시(Hetero Epitaxy)' 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제리스트는 여러 국가가 모여 정한 만큼, 일본이 독단적으로 품목을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캐치율' 기준에서도 일반 웨이퍼는 해당하지 않는다. 캐치율 규제는 리스트에 없어도 무기나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되는 물자를 가리킨다. 일반 웨이퍼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아울러 일본 기업들은 이미 일반 웨이퍼를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중국과 대만 등에 수출 할 때 개별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일반 웨이퍼가 화이트리스

트와는 관계 없다는 얘기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아직 이 같은 주장을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다. 수출 규제 품목 여부를 확인하려면 실제 수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만큼 시간은 다소 걸릴 전망이다.

만약 일반 웨이퍼가 규제 품목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다면,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한시름 놓을 수 있다. 메모리반도체 비중이 삼성전자는 70%, SK하이닉스는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헤테로 웨이퍼다. 헤테로 웨이퍼는 웨이퍼 위 아래를 서로 다른 물질로 구성한 제품으로, 주로 고성능 반도체에 사용된다. 일반 웨이퍼는 '호모에피택시' 방식으로 불린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헤테로 웨이퍼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고 전해진다. 일부 시스템 반도체와 고성능 메모리에서도.

특히 최근 역량을 집중하는 극미세 파운드리와 이미지센서 등 시스템 반도체에서 사용 비중이 높다는 후문이다.

일단 일본에서 수입하는 헤테로 웨이퍼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 특성상 구체적인 재료나 거래처를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단, 일본 신에초가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회사인 만큼 헤테로 웨이퍼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섬코는 헤테로 웨이퍼를 국내에 공급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를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KAIST, 中企 원천기술개발 지원

기술자문단 설치·가동

KAIST(총장 신성철) 전·현직 교수 100여 명이 일본의 잇따른 수출규제 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 등에 나선다.

KAIST는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대상 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한 지난 2일 직후 신성철 총장이 주재하고 주요 보직교수가 참석한 비상 간부회의를 갖고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KAMP)'을 설치키로 확정해 5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술자문단은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유력한 반도체·에너지·자동차 등 주요산업 분야 1194개 품목 중 우선 159개 소재·부품 등 관

리 품목과 연관된 중견·중소기업의 원천기술이나 애로기술 개발지원과 지원에 나선다.

기술자문단 단장은 최성을 현 공과대학 부학장이 맡고, 첨단소재분과·화학·생물분과·화공·장비분과·전자·컴퓨터분과·기계·항공분과 등 5개 분과에 기술분과장 5명, 명예교수와 현직 교수 등 100여 명의 교수진이 기술자문단으로 참여한다.

KAIST로부터 기술자문을 희망하는 중견·중소기업은 기술자문 점검접수처로 문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KAIST는 기술자문단의 지속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재정적·제도적 정비도 곧 추진키로 하는 한편 향후 운영 성과 등을 보고 지원 범위와 대상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hys@



FX153 광복절패키지(왼쪽부터), 이마트24 전투식량 포스터, 카스 태극기 패키지 단독 판매.

/11번가, 이마트24, 홈플러스

광복절 앞두고… 국민공감 '애국 마케팅'

11번가

모나미 '광복절 기념패키지' 예약

홈플러스-오비맥주

'카스 태극기 패키지' 단독 판매

GS리테일

독도사랑 캠페인, 태극기 역사 소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애국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브랜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리겠다는 것이다.

온라인쇼핑몰 11번가는 국내 볼펜 기업 모나미에서 출시한 'FX 153 광복절 기념 패키지'를 예약 판매한다.

'FX 153 광복절 기념 패키지'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자'라는 취지로 제작됐다. 투명한 바디 안에 태극무늬와 건곤감리, 무궁화 이미지가 디자인된 볼펜심을 적용했다. 해당 패키지는 4개 볼펜으로 구성됐으며, 각 제품은 태극기를 연상할 수 있는 흑·청·적색 잉크 색상 제품이다.

11번가가 나선 것은 최근 일제 불

매운동 확산으로 일본산 볼펜을 대체할 모나미 볼펜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11번가에서 일본산 볼펜 '제트스트립'을 검색한 횟수는 6월 466회에서 7월에는 3499회로 2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국산 모나미를 검색한 횟수는 1847회에서 7월에는 8755회로 4.7배 급증했다.

홈플러스는 오비맥주와 협업해 '카스 태극기 패키지'를 단독 한정 판매한다.

국산 맥주 판매 장려를 위해 기획된 이번 패키지는 카스 캔맥주(355ml) 12개를 파란색 바탕에 태극무늬가 프린트된 파우치에 담아 판매한다.

편의점 업계에도 애국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8월 한 달간 전사적으로 태극기 역사 알리기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독도사랑 캠페인'에 돌입한다. 국가 보훈처, 독립기념관과 손잡고 독립 운동과 한국전쟁에 관련된 태극기 역사 소개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도시락 전 상품에 부착하고, 독도사랑 에 코백 1만1415개를 증정하는 것.

GS리테일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간 4차례의 도시락 스티커를 통한 역사 알리기 캠페인, 이달의 독립운동가 소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희망나눔 소품 증정, 100명과 함께하는 상해임시정부 발자취 기행 등 다양한 애국심 고취 캠페인을 통해 전국민적 호응을 이끌어왔다.

이마트24는 광복절을 앞두고 영화 '봉오동전투'와 협업해 프레시푸드 3종 '반합옛날도시락', '불닭폭탄주먹밥', '전투버거'를 출시했다.

영화 '봉오동전투'는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해 최초의 승리를 거둔 독립군의 전투를 그린 영화로 개봉 전부터 주목받고 있다. 프레시푸드는 영화 스토리를 반영해 전쟁터에서 먹는 전투식량을 콘셉트로 했다. 오는 21일까지 한정 판매된다.

패션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신성통상의 '탑텐'이 일찍이 광복절 기념티셔츠를 출시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리멤버 프로젝트'의 2탄으로 첫 출시 때보다 2배 빠른 판매 속도를 보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당국 구두 개입에도 금융시장 '패닉'

환율 1200 돌파, 코스닥 600 하락
금융위 "총력대응… 불안해 말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우려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2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시장은 6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지수는 7.46%나 급락해 569.79로 마감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커졌지만 외환보유 규모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에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금융상황 점검회 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생산과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은 당국의 진화에도 패닉을 면치 못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6원 오른 1203.6원으로 출발했다. 장중 달러당 1200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1월 11일(1201원)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증시 역시 지난주 2000포인트가 무

너진 코스피는 이날도 급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600선 아래로 내려갔다.

당국은 경제 체질이나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손 부위원장은 "아직까지 우리 금융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외채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